

“야호~ 1부리그 간다” 광주 FC 올해 최고의 순간



2019 K리그2 우승팀 광주FC가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홈패전이 끝난 뒤 진행된 우승 시상식에서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경기 마치고 우승 세리머니로 팬들과 함께 기쁨 만끽
을 19라운드 연속 무패 등 지지않는 경기 팬들에 선물
박진섭 감독 “1부리그 잔류 목표로 탄탄한 팀 만들겠다”

K리그2 ‘ 챔피언’이 홈팬들 앞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광주FC가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9 K리그2 우승 시상식을 갖고 K리그1 복귀를 알렸다.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한 2019시즌 홈 패전이 끝난 뒤 우승을 축하하는 무대가 시작됐다. 경기 1-2패로 끝나면서 ‘홈 무패 우승’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광주는 우승팀이 되어 그라운드에서 박수를 받았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선수들을 이끈 주장 김태운과 부상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던 주장을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차고 시즌 중반 질주를 이끌었던 부주장 여름 등 선수단이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김태운이 애타게 기다렸던 우승 트로피를 높게 들어올리자 선수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이어 승리의 상징이 된 노란 유니폼 대신 ‘우승 기념티’로 갈아입은 선수들이 다시 한번 챔피언 자격으로 단상에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선수들은 시즌 내내 응원을 아끼지 않은 팬들 앞에서 승리의 응원을 부르고, 가족들과 그라운드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올 시즌 최고의 순간을 보냈다. 폭풍 같은 질주 끝에 맞이한 우승 세리머니의 날이었다. 서울이랜드와의 시즌 개막전 2-0 승리를 시작으로 광주는 19라운드까지 단 한번도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면서 선두 자리를 지켰다. 20라운드 FC안양 원정에서 1-7로 시즌 첫 패를 당하며 위기도 맞았지만 광주는 21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다시 승리 행진을 재개했다. 그리고 지난 33라운드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4-0으로 설욕에 성공한 광주는 이라운드 결과, 부산아이파크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고 마침내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선수들로부터 우승 행거를 받은 박진섭 감독은 “(홈무패우승) 대기록을 세우지 못한 것은 아쉽

만 기쁜 날이었고 우승 축하파티는 날이어서 선수들에게 부담감 없이 즐기라고 했다. 재미있게 끝난 것 같다”고 안방에서의 마지막날을 이야기했다. 또 “선수들과 아마추어일 때 우승해 봤는데 프로팀 지도자 첫 우승인데 너무 기쁘다”며 “그리고 1년 동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생각이 많이 들었다.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2년 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K리그1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박 감독은 ‘잔류’를 우선 목표로 탄탄한 광주를 만들고 싶다는 꿈도 밝혔다. 박 감독은 “내년 K리그1에서 잔류하는 게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팀 특정한 팀을 만드는 게 목표다”며 “올 시즌 관중수가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전용 경기장에서 하나씩 환경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축구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응원 해주시면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드리겠다”고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광주의 ‘터줏대감’으로 강등과 승격 그리고 우승을 모두 경험한 부주장 여름은 “2014년 때 승격해서 올라갔을 때는 많이 울었는데 올해 이렇게 우승할 때는 눈물보다는 기쁨 행복 이런 게 가득해서 너무 좋다”고 우승의 기쁨을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에 덜미... 광주 FC 홈 무패 우승 좌절

홈 최종전 1-2 패배
내년엔 축구 전용구장서 새출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광주FC의 171번째 이야기가 아쉬운 패배로 끝났다. 광주가 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2019 K리그2 35라운드 홈경기를 치렀다. 광주는 시즌 마지막 홈경기이자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1-2로 지면서 홈에서 첫 패배 기록했다. K리그2 ‘우승팀’ 광주는 2020시즌 K리그1 그리고 축구전용구장에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광주는 올 시즌 K리그2 최다무패(19경기), 창단 첫 6연승, 팀 최다승점(현재 21승 73점) 등 기록 행진을 펼치며 우승의 꿈을 이뤘지만, ‘홈 무패 우승’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관중석에 5408명이 입장하면서 올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이 새로 작성됐다. 이와 함께 올 시즌 광주의 2019시즌 총 관중은 6만2077명, 평균관중 3267명을 기록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마지막 경기의 선제골은 전

남의 몫이었다. 전반 7분 만에 정재희의 패스를 받은 바이오가 광주의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광주 최준혁이 오른발 슈팅으로 응수했지만 공은 전남 골키퍼 박준혁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전반 33분 기다렸던 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몰고 간 이시영이 중앙으로 침투하던 두현석을 향해 뒤로 공을 넘겨줬다. 침착하게 공을 잡은 두현석이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크로스를 강타한 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 초반 움직임은 광주가 주도했다. 후반 시작 1분 만에 전개된 코너킥 상황, 두현석의 크로스를 받은 김태운의 헤더가 아쉽게 골대를 비켜났다. 후반 13분 안에는 윌리안이 골키퍼 앞까지 공을 몰고 갔지만, 마지막 결정력이 아쉬웠다. 후반 마지막 공세에도 광주는 끝내 전남의 골대를 뚫지 못하면서 전남에 승리를 내줬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 9년 안방에서 치른 171경기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만들었고, 우승 세리머니로 광주월드컵경기장시대의 막을 내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리틀 태극전사들 “앙골라, 딱 기다려!”

U-17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칠레에 2-1 승리 16강 진출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19 브라질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미의 칠레를 잡고 자력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3일 브라질 비토리아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백상훈(오산고)과 홍성욱(부경고)의 연속골을 힘입어 칠레를 2-1로 꺾고 프랑스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했다. 4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한 한국은 오는 6일 새벽 4시 30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 A조 2위 아프리카의 앙골라와 8강 행을 다룬다. 한국의 U-17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은 1987년과 2009년의 8강이다. 이 경기서 승리를 거둬 8강에 진출할 이번 U-17 대표팀은 손흥민(토트넘)과 김진수(전북)이 활약한 지난 2009 나이지리아 U-17 월드컵 성적(8강)

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한국은 경기 시작 1분도 되지 않아 백상훈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제압했다. 이 골로 한국대표팀은 대한민국 남녀 각급 대표팀의 FIFA 주관 대회 경기 역사상 최단 시간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시작 52초 만에 골을 넣은 백상훈은 기존 최단 시간 득점인 1999년 나이지리아 U-20 월드컵 조별리그 말리전에서 설기현의 전반 3분 득점을 넘어섰다. 한국 남녀 대표팀의 모든 경기 통틀어 최단 시간 득점은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열린 AFC U-23 챔피언십 말레이시아전에서 조재완(강원FC)이 경기 시작 12초만에 터뜨린 골이다. 선제골로 주도권을 잡은 한국은 공세를 이어갔고, 전반 30분 바라던 추가골이 터졌다. 대표팀 전담 키커인 엄지성(금호고 2년)이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렸고 센터백 홍성욱이

헤딩으로 마무리했다. 홍성욱의 슛팅은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을 통과했고 비디오 판독(VAR) 끝에 골로 인정됐다. 전반 41분 칠레에게 추격골을 허용했지만 잇따라 신들린 선방을 선보인 골키퍼 신승훈(금호고 2년)의 활약 속에 한국대표팀은 여러 차례 위기를 넘기며 승리했다. 엄지성(금호고 2년)은 “앙골라전 코너킥 및 프리킥 전담 키커였다”며 “직접 올린 코너킥이 두 골의 시발점이 되어서 기쁘다. 코너킥이 할 때 공이 잘 감겨서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정수 감독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먹고 꼭 쉬고 빠르게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회부터 체크했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특유의 스피드가 장점이다. 스피드가 뛰어난 앙골라를 어떻게 상대할지 남은 시간 고민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3일 브라질 비토리아 에스타지우 클레베르 안드라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FIFA U-17 월드컵' 대한민국 대 칠레 조별예선 3차전. 2-1 대한민국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 후 결승골을 넣은 홍성욱이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